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지원을”

도,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방안 건의 공항운영권 부분참여·교통·환경시설 확충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개발과 관련 연계 상생발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한다.

제주도는 8일 도청에서 실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과 공항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특히 제2공항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 해소와 소음피해 대응을 비롯 이주대책대상자 생활 터전 마련 및 주변지역 교통환경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서 건의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 보상 등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의 필요성과 공항개발

과 연계한 교통망, 환경 등 인프라 및 배후지원 시설계획 마련의 필요성 등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우선 랜드시드 부문에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부분 참여반영을 첫 건의사항으로 꼽았다. 제2공항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 해소와 소음피해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지원·관리 등을 위해 공항 운영권 참여 반영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랜드시드 건설에 부분적으로 투자 및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접근 교통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제2공항과 기존 도심 간 연계도로 확충과 제2공항 인근 대체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공항과 기

존 도심간 연계도로 확충에만 6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이와 함께 2공항 개발로 상주·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재정비와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도 제주도의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공항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 지원 역시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제주도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집중공약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공항과 연계한 상생발전인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기자 sycho@ihalla.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 조기 지원”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강조 “태풍피해 심각... 복구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태풍 ‘미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풍 피

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힘이 되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국민 10명중 1명 방사선비상구역 거주”

위성곤, 수력원자력 자료분석 “안전 최우선 에너지정책을”



우리 국민 500만명이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원전 밀집도 상

위 10곳 중 4곳이 우리나라 원전이며 이들 각 원전의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인구는 531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명임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이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다.

원전 반경 30km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관리 구역이다.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원전단지는 우리나라 고리원전(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으로 원자로 개수 9기(건설중 2기 포함), 반경 30km 내 인구는 382만명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부르스 원전으로 원자로는 8기이지만, 30km 내 인구는 3만명으로 고리원전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세계 원전 밀집도 최상위 원전단지 10곳 중 4곳이 우리나라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원전 영향권에 거주하는 만큼 원자력발전은 안전관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서귀포시, 14일까지 모집

서귀포시는 이달 14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 청결한 가게 운영, 기본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업소로 현재 서귀포시에는 외식업 24개소, 이·미용업 7개소, 숙박업 2개소, 세탁업 1개소 등 총 34개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선정신청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제주도에서 현장실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

가격업소 명패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등 요금 보조 >방역과 전기안전점검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매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업소의 정결과 서비스 관리,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발굴, 홍보로 착한가격업소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연내 설립 불발 제주시설공단 속도낼까

조례 상정 거부 김태석 의장 377회 임시회 회부 의지 밝혀 도, 내년 7월 출범 목표 준비

연내 설립이 불발된 제주시설공단의 내년 7월 출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나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례적인 의장의 두차례 직권 거부가 논란이 되자 김 의장은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시설공단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000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이라며 “조례 심사 이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도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는지 사전에 한번 더 검토해보는 것은 도민의 뜻을 가능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 속 강행된 ‘대중교통 개편 정책’의 사례를 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도 했다.

7월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내년 7월 제주시설공단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중이다. 하지만 조례안 상정 및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로드맵은 밀그림에 불과할 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며 “내년 7월 인사와 맞물려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례안은 제3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아직 회부는 안했지만 이번 회기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설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영버스, 하수, 환경, 주차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조직 및 정원은 3본부 1실 15팀 110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은기자 eioh@ihalla.com

<이시대의 진정한 지성인> 장기표선생 시국 강연회

나제모는 나라와 제주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강연회와 기도로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에 지도자들이 현 시국을 걱정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세계관을 고취시켜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적극 환영합니다.

일시 2019년 10월 9일(수) 오후 2시
장소 제주벤처마루(10층) 제주시청 앞 (제주시 중앙로 217)

주제: 문재인정권 총체적 시국파탄과 대안
참여대상: 애국시민(보수·우파)이면 누구나

나제모 공동대표: 김정서, 신구범, 류승남
실무책임자: 김봉현(010-4690-1990)

나라와 제주를 위한 기도모임(나제모)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수감귤 경연대회 신문 공고

- 목 적
 - 제주감귤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영리더를 도모하는 선도농가 발굴 육성
 - 고품질감귤 재배농가에 대한 자긍심 및 영농의욕 고취

- 출품 방법
 - 출품용 감귤은 노지감귤에 한하여 S급(54mm ~ 58mm) 5kg 1상자 출품(출품검사 및 외관심사용)
 - 우수감귤 경연대회 참가신청서 작성 후 출품감귤과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는 농·림·축·수산부 또는 지역본부로 문의

- 제출 처
 - (사)제주감귤연합회 사무국(농협지역본부 감귤지원단내)
 - 문의: ☎ 064-720-1490

■ 출품기일: 2019. 10. 18(금) (제한)

■ 심사기준

○ 심사항목별 배점: 총점 100점

심사항목	배점	비 고	
1차	품질	20	■ 1차 품질검사(당도, 산도) 및 당산비, 2차 외관심사, 3차 외관심사 실시 후 '2019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출품자 확정
	감사	20	
	산도	20	
	당산비	10	
2차	소개	50	
	외관심사	20	
3차	과원 현지심사	30	
	합 계	100	

■ 수상자 선정방법

- 품질검사(당도, 산도), 당산비, 외관심사, 과원 현지심사 평가를 종합한 점수로 상위 입상자 12등가 최종 선정
- ※ 수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별대회 참가자격 부여
- 각 수상자별 상패 및 시상금(농산물상품권)
 - 최우수상(1,000천원), 우수상(700천원), 노력상(500천원), 장려상(300천원)

제주농협 · (사)제주감귤연합회

2019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한라산둘레길 백패킹

한라산둘레길은 청정 자연이 만들어낸 제주 삼다수와 함께 환경보전의 가치를 느끼고 숲이 인간에게 주는 정신적·육체적 치유의 기능 연계시켜 진정한 건강가치를 창출하고자 백패킹 참가자들을 초청합니다.

사업명 2019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백패킹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13일(일)

| 사업내용 |

- 가. 행사일정: 2019년 10월 12일(토) 08:30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집합 후 이동(버스)
- 나. 장 소: 한라산둘레길 천야숲길, 돌오름길
- 다. 모집인원: 1박2일 백패킹 10명 당일 트레킹 참가자 20명
- 라. 모집방법: 공개모집(참가비 무료)
- 마. 개인준비물(1박2일 백패킹 대상자): 개인 캠핑장비 일체, 비옷
- 바. 제 공: 점심제공, 보험가입
- 사. 접수방법: 오전 9시 이후 전화접수 (064-738-4280)
- 아. 문 의: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064-738-4280) 한라산둘레길 홈페이지 (www.hallatrail.or.kr)

주최: **한라산둘레길**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